

기독교 국가관과 투표 지침

성경말씀 딛전2:14

2016년 10월 24일,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 수정했다는 의혹을 JTBC가 제기하면서 '최순실 태블릿PC 사건' 보도됨, 연이어 최순실 국정 개입 보도가 봇물처럼 쏟아짐, 대통령 사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2016. 12. 9), 헌법재판소 탄핵(2017. 3. 10.)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고영태 녹음 파일 등...

탄핵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 모두가 혼동스럽다. 모든 곳에서 이 이야기,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촛불, 태극기 집회 나가는 분들의 견해 대립, 목사의 기독교 세계관(1월 29일), 투표 지침(3월 20일과 21일): 공산주의, 국가 안보, 동성애 등, "목사가 왜 정치 발언을 하는가?" 등 오늘은 이에 대해 저와 교회의 입장을 밝히려 함:

오늘은 탄핵의 옳고 그름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믿음 설명, 오랜 시간 고뇌, 리더들 의견 취합 우리 교회 헌법의 믿음 진술문: 총 13개 믿음 1. 성경, 2. 하나님, 3. 예수님, 4. 성령님, 5. 천사, 6. 창조, 7. 사람, 8. 구원, 9. 교회, 10. 분리, 11. 정부, 12. 휴거와 재림, 13. 영원 상태 K. 정부(11번): 우리는 시민 정부가 인간 사회의 공익과 질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믿는다(출18:21-22). 사형제도는 시민 정부가 지닌 특징 중 하나이다(창9:6; 롬13:3-4). 우리는 행정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며 우리 양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고 정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한다.

지금까지 나는 우리 교회가 규정한 '시민 정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오늘은 성경을 통해 목사와 이 교회가 추구하는 국가관(시민 정부)을 밝히려 한다.

특히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으므로 좋은 지도자 선출, 앞으로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등 오늘 설명이 혹시 정치 이념을 바꾸라는 이야기로 들릴까봐 조심스럽다. 오늘은 교회의 국가관 설명 한 사람의 정치 이념 혹은 정치관: 집안 배경, 교육, 친구, 소득, 종교, 지방색, 학연의 영향 받음 따라서 이것을 바꾸기는 대단히 어렵다. 목사가 요구할 수 없는 문제, 요구해서도 안 됨 다만 이번 기회에 "나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칠까?" 등 생각해 보기 바란다. 오늘의 교육 설교 목적

목사와 이 교회가 믿는 바를 세상에 천명하고 성도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것을 수용해서 따르고 따르지 않는 것은 성도들의 자유이다.

그러나 교회의 리더들과 교사들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나는 목사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민주 시민을 만들기 위해 교육할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전반의 인재가 되어야 한다: 정치, 종교, 문화/예술, 언론, 공학/과학 등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체 하에서

목사에 대한 오해

"목사는 성경만 가르치고 설교하면 된다. 왜 정치 이야기를 하는가?"

많은 성도들의 오해: 목사는 구원 설교, 가정, 동성애 및 진화론 반대 등만 가르치면 된다.

목사의 책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회피하지 않고 알려야 함(행20:27). 시민 정부도 교리이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에게 주어져서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요12:31; 14:30).

마귀의 통치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세상 정부를 좌지우지 한다.

결국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자신의 통치 안으로 넣는다.

그러므로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는 영역은 인간의 모든 영역이며 여기에는 국가/정부도 포함된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은 강력하게 마귀의 지배를 받는 공산 정부 국가이다.

UN 등은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위해 노력하는 세계정부주의자들의 기관이다.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나라/정부/자유를 지켜야 한다.

믿는 자들의 의무는 내가 사는 국가의 체제와 자유가 보존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딛전2:1-3).

그래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평안하게 믿음 생활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정치에 민감해야 하고 관심을 두어야 한다.

16년 11월 5일: <목사와 정치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정치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 세상의 통치가 어디로 가는지 잘 살펴야 한다.

이유: 우리의 믿음 생활 전반이 정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

예수님도 국가와 지도자 인정(마22:21): 헤롯, 빌라도 등 정치 지도자 상대, 정치에 민감하셨다.

바울도 국가 권력 인정(롬13), 세상 돌아가는 일에 민감함

구약 시대 이스라엘: 시작부터 끝까지 국가 이야기,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 나라 지키는 이야기
모세, 여호수아, 재판관들, 다윗,.. 모든 왕

대언자: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등 국가와 관련된 사역

한국 개신교회/침례교회는 미국 교회의 후손

미국의 목사: 3대 프로페셔널 중 하나(의사, 변호사, 목사)

특히 목사는 성도들의 전 생활을 지도: 가장 지혜롭고 공부를 많이 하여 세상사에 뛰어난 사람

아이비리그 대학들(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이 모두 목사를 키우기 위해 세워짐.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는 여러 훌륭한 목사들의 영적 지도와 충고를 받으며 세워짐

지금도 투표 때가 되면 가장 유명한 교회의 목사들(보수적이고 근본적인 교회들)이 기독교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000를 뽑아야 한다고 텔레비전 인터뷰, 이것은 보편적인 일

목사의 정치적 발언이 우리에게는 어색할지 모르지만, 국가의 지도자 선정이 곧바로 국가 정체성, 동성애, 낙태, 무상 복지, 종교 다원주의 등에 영향을 미친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였다. 국민은 왕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다.

제국이 이미 하나가 되어 로마의 평화를 제공함.

그러므로 바울은 왕과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강조(딤후2)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순종하고 세금을 바치고 경의를 표할 것 명시(롬13)

그러나 시간이 2,000년쯤 지나며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국가의 지도자를 국민이 직접 뽑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보호하고 지켜 줄 사람을 뽑아야 한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 혹은 영적인 일이 아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의미(마5:13-14):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체제의 우수성을 공부하여 인식하고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

정치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도자를 잘 뽑고 세상 풍조에 민감해야 한다는 말이다.

고전 13장 사랑 장, 사랑(Charity)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고전13:6)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있으면 세상도 바로 보고 판단하고 투표해야 한다.

요일4:1의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는 말씀은 여기에도 해당된다.

하나님의 왼쪽과 오른쪽

좋은 시민/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것(가치)과 옳지 않게 보시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에도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주신다.

우리말의 오른쪽과 왼쪽

1. 오른쪽은 ‘옳은 쪽’에서 나옴, 의롭다, 바른쪽, 바른손
2. 왼쪽은 ‘왼 쪽’에서 나옴. 외다: 형용사, a. 물건이 좌우가 뒤바뀌어 놓여서 쓰기에 불편하다.
b. 마음이 꼬여 있다.
3. 이것은 결코 왼손잡이나 왼쪽에 서는 것, 건물 등이 다 나쁘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영어의 Right과 Left

오른쪽 혹은 오른손은 ‘Right hand’, 왼쪽 혹은 왼손은 ‘Left hand’

Etymology 사전

1. Right: good(좋다), proper(적합하다), fitting(적당하다, 어울리다), straight(곧다)
2. Left: weak(약하다); foolish(어리석다), lameness(다리를 절다), paralysis(마비)
3. Righteous: Right_wise에서 나옴, 즉 옳은 길 혹은 옳은 방법
4. Righteousness: 의, 동일한 히브리말이 정의로도 번역됨(Justice)
5. Just: morally upright, righteous in the eyes of God

성경의 Right hand와 Left hand 통계

성경은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 성경은 성경으로 본다. 성경은 이에 대해 무어라 말하는가?

안드로이드 앱 **LIFOVE** 혹은 **KeepBible** 통계:

1. 오른쪽 87회, 오른편 34회: 총 121회 + 오른손 84회 = 205회
2. 왼쪽 47회, 왼편 12회: 총 59회 + 왼손 20회 = 79회

성경의 Right hand와 left hand 용례

1. 왼쪽 오른쪽 방향을 나타내는 경우: 창13:9; 출14:22; 민20:17; 신2:27; 마27:38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네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창13:9).
2. 오른손, 왼손을 나타내는 경우: 창48:13-14, ‘므낫세와 에브라임 축복’
3. 모든 방향 즉 양쪽 모두에 어디에나 다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대하18:18, 잠3:16
“그가 다시 이르되, 그런즉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온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나이다”(대하18:18).
4. 어떤 식으로든 정도(옳은 것)에서 떠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수1:7; 대하34:2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수1:7).
“요시야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길들로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대하34:2).
이런 구절을 오용하여 ‘국가관/세계관’ 등에서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율법’과 ‘주의 눈앞에서 옳은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다. 이런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말라는 말이다.
5.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 출15:6, 12; 신33:2; 시17:7; 48:10; 60:5; 63:8; 77:10; 78:54; 80:15; 98:1; 118:15; 138:7; 139:10;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나이다”(출15:6).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 같은 율법이 나왔도다.”(신33:2)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대로 주를 찬양함도 땅 끝까지 이르나니 **주의 오른손에는 의가** 가득하나다”(시48:10), **Right hand, righteousness**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사41:10), **Right hand, righteousness**
6. 예수님의 절대적인 위치: 언제나 하나님의 오른쪽, 메시아 시편 시16:11; 110:1; 마22:44, 26:64; 막12:36; 14:62; 16:19; 눅20:43; 22:69; 행2:25, 33, 35; 5:31; 7:55-56; 롬8:34; 엡1:20; 골3:1; 히1:3, 13; 8:1; 10:12; 12:2; 벧전3:22, **적어도 24구절**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시110:1).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리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매”(행7:55-56)

7. 최종 심판과 관련된 경우: 마25:33, 34, 41

“주님께서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마25:33).

“그때에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마25:34).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마25:41).

8. 하나님은 Right과 Left라는 말을 써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른쪽(Right hand)에,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은 왼쪽(Left hand)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신다.

즉 옳은 것을 택하는 자들과 비뚤어진 것을 택하는 자들을 오른쪽과 왼쪽에 분리해서 두신다(마25).

9.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0장 2절에서 분명하게 말한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오른쪽)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왼쪽)에 있느니라”(전10:2). A wise man's heart is at his right hand; but a fool's heart at his left.

10.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옳은 것들을 택해야 하고 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성경의 Right hand와 left hand를 통해 본 죄와 구원

창조의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다(창1:31). 옳았다. 다 ‘옳은 쪽’(오른쪽)이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식들로 태어남, 즉 하나님의 왼쪽 사람으로 태어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간다(사53:6).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롬3:10-12)

죄란 하나님 보시기에 왼쪽의 것(가치)을 택하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Righteousness)를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가 의(Righteousness)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5:21). **죄와 의, 왼쪽과 오른쪽**

즉 구원은 Righteousness를 받아 Righteousness가 되는 것이다.

비뚤어진 것을 바르게 교정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바른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옳은 쪽, 오른쪽)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구원받았다 해도 우리는 다 태생이 왼쪽 사람이라 시간이 걸린다.

다만 우리 교회는 목사와 리더들이 이것을 알고 우(오른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성화이다.

투표 등 세상일에서도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해야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쪽의 가치

우(오른쪽)의 가치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1. 창조(창1:1): 진화는 좌의 가치

2. 결혼: 남자와 여자, 동성애는 죄악, 이혼 No!

3. 사형제 집행(창9:4-6)

4. 부자들이 가난한 자 배려: 신약과 구약 동일하다(행20:33-35).

5. 남편과 아내(엡5:22-33: 복종과 사랑), 부모와 자식(6:1-4, 순종과 공경,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육으로 양육), 주인과 종(6:5-9), 순종하며 잘 섬겨라, 헐박하지 말라)

6.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 믿음으로 은혜로만 된다(행4:12; 롬10:13; 엡2:8-9). 벗어나면 종교 통합, 왼쪽

7. 경제 개념, 땀을 흘리고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창3:17-19).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 말라(살후3:10, 12; 엡4:28). 즉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윤을 추구하여 경제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 시장 경제(오른쪽의 가치), 이것을 붕괴시키는 것은 왼쪽 사상

8. 이러한 가치를 깨뜨리거나 뒤집어엎으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왼쪽 사람이요, 왼쪽 사상이다.

9. 구원과 상관있는 왼쪽 오른쪽(종교 통합), 삶에서 상관있는 왼쪽 오른쪽(사형제)

사람의 문제

문제: 사회가 공평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무엇을 가지고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는가? 대부분의 경우 부와 재물의 문제 기준

자유 경쟁을 하게 하니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를 바꾸려 하거나 체제를 바꾸면 획기적으로 무언가가 달라질 것을 기대한다.

그런데 이것은 자유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 문제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욕심과 탐욕이 있어서 이 문제는 인류가 존속하는 한 어디에서도 해결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에서도 공평과 정의가 항상 문제였다(시73 아삽의 시). 73:2-5, 17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사회 경제 정의를 구현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주의이다. '모두가 동일하게 평등하게 나누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론'

'경제 민주화': 말과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 사회주의와 맥이 맞닿아 있다.

사회주의/공산주의의 배경: **유신론이 아니라 유물론이다. 물질만능주의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유 시장 경제'를 '자본주의'라는 용어로 바꿈 나눔. '돈만 안다.' 프로퍼겐더

인간의 기본 욕구인 경제에 대한 사상적 갈등

하나님의 '자유 시장 경제'와 인간의 '분배 경제 평등주의'의 싸움이다.

즉 열심히 일해서 성장하는 것이 먼저냐, 균등하게 분배가 먼저야?

성장하려는 것은 인간의 기본 자유, 누르거나 빼앗아서 동일하게 하는 것은 No!

분배 평등을 이루면 나라가 잘될까? 역사가 그 반대임을 증명한다.

소비에트 연방 몰락, 북한 몰락, 할 수 없이 중국은 경제는 자본주의 채택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몰락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예외적인 국가, 그러나 지금 이들도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

스웨덴: 1, 2차 세계대전 화약 등을 팔아 부자가 되면서 사회주의 실시, 부가 있었기에 처음에는 가능함

시간이 지나면서 불보, 사브 등 좋은 기업을 다 팔아야 함, 평균 세금 50%. 배짱이들이 생긴다.

생산성 하락, 결국 몰락하게 됨, 초진 후 전문의 만나기까지 90일, 의사가 되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

사회주의 사회의 특징: 나는 적게 일하고 많이 일한 다른 사람의 것을 나누려고 한다.

평등주의를 실행하면 반드시 하향평준화: 대표적인 사례 북한

특히 스칸디나비아 3국은 유물론 국가: 이혼율 세계 최상위, 부부 자식 간 무조건 평등(동등), 성경에

따른 믿음 생활 거의 불가능, 평등과 동등은 다르다.

2016년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 투표: 성인 300만원, 아동 75만원, 국민들의 77%가 무상 지원 반대

젊은이들 취직이 안 된다. 'Hell 조선'

우리나라만 그런가? 아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 로봇 사용, 자율 자동차 등, 인력이 필요치 않다.

모든 나라의 문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세상 정보를 바르게 알고 아이들 직업을 위해 미리 미리 대처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어떤 체제가 가장 합리적인가?

왕정 국가, 공화정 국가, 민주국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실험해서 만든 것

모두 다 불완전하지만 6000년 역사 가운데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높이며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자유를 보장해 주는 체제: 민주주의

영국과 그 후손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앵글로 색슨족이 가장 융성함

이들이 유대인 보호, 성경 보존, 성경적 국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애를 씀

이러한 역사적 데이터를 무시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라는 좌익 사상을 추종하고 신봉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에서 그리스도인이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No!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우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

누가 좌파가 되는가?

1.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뒤집어엎으려는 혁명적 인본주의자들
2. 부드러운 심성을 가진 많은 분들
3. 특히 교회 다니면서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
4. 마음은 부드럽지만 성경적 통찰력으로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약자만 배려해야 함을 강조하면 교회가 좌경화 된 사람을 양산할 수 있다.

마르크스: 불우한 삶이 그의 사상에 영향을 미침,

좋은 직업(교수)을 못 얻음-> 지독한 가난-> 자녀와 아내의 죽음-> 계속되는 빛, 파산, 급진 좌파

장신대 김철홍 교수: <나는 왜 좌파 사상을 버렸는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 **감성적 좌파**

그런데 좌파 혹은 왼쪽이라는 말이 좋지 않음을 인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진보, 보수라고 한다.

진보: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변혁을 추구하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

진보는 좋고 바람직한 것이다.

반대: 퇴보, 누구도 싫어한다. 반동(反動), 수구 꼴통

그런데 좌파가 자기들을 진보로 규정하니 보수는 자연히 퇴보하는 수구 꼴통 사람(집단)이 된다.

“나는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이다: 22살 유학, 미국에서 공학, 신학, 성경에 잘못이 있음을 보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번역, 바른 교회, 교회의 모든 제도/문화 등 바르게 하려고 진보

설교, 책 등도 장로교/감리교 따지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선정하여 읽고 보급”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오른편의 것을 굳건히 지킨다: 창조, 결혼, 사형제, 구원, 자유 시장 경제

그래서 나는 보수로, 동시에 진보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분들, 동시에 보수적인 분들

다 잘 살아 보려고 한다. 학교, 직장, 배우자, 모두 진보

대한민국의 산업화 대단한 진보: 최빈국에서 10대 경제 대국, 모두 진보

진보의 두 얼굴

1. 좌익 혁명 세력의 진보: 고대노예제도 사회-> 중세봉건사회-> 자본주의 사회-> 공산사회

2. 대부분 선량한 시민들의 진보: 사전적 의미의 진보, 좋게 발전하는 것

예: 2008년 5월 광우병 사태(3개월) 촛불 시위, MBC PD 수첩, 다운너 병 소를 광우병 소, 뇌 송송...

촛불 집회를 총괄하며 단상에 올라 행사를 진행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진보연대, 민주노총(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

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등, 중북 좌파, 사회주의 좌파, 국가보안법 철폐, 동성애지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북한 지지, 쇠 파이프, 각목 등 격한 폭력, **목표 체제 전복**

결국 모든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주동자들은 잡혀 들어감. 6명 지명 수배

2017년 3월 29일, 이번 촛불 시위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행진팀장 김광일 씨 9년 만에 체포

이런 집회의 함정: 대개 이런 중북 성향의 좌파 인사들이 자리를 마련하고 주최함.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대개 선량한 분들임(약자 보호, 정의 구현 등).

순수한 마음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믿고 국가를 위해 거리에 나와 있음.

여기 참여하는 많은 분들은 전쟁이 나면 자기들이 북한과 싸울 것이라고 말함.

이번 탄핵 촛불도 비슷한 양상: **민중 총궐기**(위키 백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는 지 3일 뒤 북한 노동신문은 3월 13일 “장하구나 초불, 민중이 주인

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자”라며 “99%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 이제 시작”이라는 조선중앙통신사

의 입장을 실었다. 북한 정권이 남한의 촛불 군중을 “장하다”고 격려하는 모양새가 됐다. (“미려한국

3월 24일)

그리스도인의 의무:

바른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함: 언론들이 바른 것을 공중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특히 중편과 포털들: 따라서 내가 정보를 받는 데가 어떤 곳인지 스스로 성향을 평가해야 한다.

균형을 잡아야 한다: 사이트 <자유 경제원>, 신문 <미래한국>, 책: <반대세의 비밀>, <대한민국 역사>(이영훈)

투표 지침

이제 5월 9일 대통령을 선출한다: 국민의 의무, 기독교인의 의무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기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지지하고 추구하는 사람, 우리나라 안보를 튼튼히 지킬 사람

1.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 1945년 8월 15일 이후 7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북한이라는 불법 단체'가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가장 더럽고 열악한 공산주의 체제가 대립하고 있다.

동일 민족, 말, 자원 등, 왜 둘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체제의 차이 즉 사상의 차이

그러므로 모든 선거에서 그리스도인은 민주주의/자유 시장 경제를 지키는 후보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유: **우리 체제는 하나님의 오른쪽, 사회주의/공산주의는 왼쪽 사상**

2. 국가의 안보, 핵무기의 위험, 사드 배치 반드시 해야 한다(친미, 반중).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중국이 미국을 누르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것이기에 중국 쪽으로 줄을 서야 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전문가들이 있다.

그렇지만 세계정세를 조금만 살펴보면 결코 미국의 시대는 쉽게 저물지 않는다.

친중 반미는 배은망덕한 행위, 나라가 있어야 믿음의 자유

3. 동성애 반대, 사형제 찬성

4. 딜레마: 이런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없다. 차선을 택하여야 한다.

a. 국가 체제와 안보, b. 동성애

부부가(가정이) 의논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옳은 쪽에 속한 사람을 정해 투표할 것

국가관 결론

인류 역사 최초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정치가 아니라 경제

자유 시장 경제(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맘 흘려 마음껏 원하는 대로 먹고 살아라).

사회 정의와 부조리 척결이라는 가면을 쓰고 공평 분배를 주장하는 사회주의는 사실 마귀의 개념, 어떤 분들은 너무 과격한 발언이라고 하겠지만 이것이 성경적 관점이다.

약자 배려, 사회 정의 실현, 각종 부조리 척결이라는 긍정적 가치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은근히 좌파 사상을 전염시키는 현상은 더도 덜도 아니고 사탄이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일(고후11:14) 시대가 혼탁하고 정치 상황이 혼란할 수도 그리스도인은 맑은 정신과 바른 분별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시는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이다.

자유 시장 경제: 하나님이 주신 것

민주주의: 불완전하지만 고치면서 나가면 된다. 인간이 만든 최선의 제도

이 체제의 우월성을 인식하고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

대한민국의 체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체제, 이 체제로 흡수 통일해야 한다.

사랑침례교회는 이것을 지키고 노력하려는 사람들의 모임

우익의 가치, 동성애, 국가 안보 등 지켜야 내가 살고 아이들이 살고 성경이 살고 교회가 산다.

목사의 고뇌

끝으로 목사의 고뇌를 나누려 합니다.

가령 저와 국가관 안보관 세계관 정치관이 모두 100% 동일하여 이전의 여지가 없이 대화가 잘 통하는 불신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또 다른 한편에는 앞서 말한 모든 부분의 생각이 저와는 다르며 국가와

정치 현안을 이야기하면 사사건건 대립하는 형제/자매, 그러나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된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와 영원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나눌 동료는 후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저와 국가관이 다르더라도 그는 구원받았기에 영원을 함께 할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표현을 해 볼까요. 한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터전을 닦고 오늘날 한국을 이만큼이나 잘 살게 만든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재벌 총수일수도 있고 경제 관료들일 수도 있고 심지어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아무리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 국가관과 세계관에서 저와 일치하며 이 부분에서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살아있는 동안 구원받지 못했다면 저와 그들은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은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이후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 전쟁터입니다. 전략과 관점이 다른 동료와는 안타깝지만 함께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함께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내 적이고 내가 그의 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지요.

이 땅의 지역 교회는 사탄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전략기지요, 최전방에 위치한 야전사령부입니다. 교회를 이끄는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국가관과 세계관에서 심한 이견이 존재하면 그 지역 교회는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일을 힘 있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목사와 교회가 믿는 바를 설명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형제/자매님들은 이 점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시고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점에 대해 저와 견해가 다른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나 교회는 이것 때문에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결코 막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혼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교리들처럼 교회 안의 다른 지체들에게 파급시키지는 말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쪽을 택하는 교회임을 천명하였지만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 이슈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도 배워서 실천하기 바랍니다.

목사 또한 성도들이 바른 사고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하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끌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의 교육 설교도 바로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처럼 교회를 목양하는 영적 목자인 저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 모두가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때로 목자는 양떼 전체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 몇몇 양들의 어려움과 갈등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양들이 아파하는 그 이상 목자인 이 목사도 마음도 무겁고 답답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국가관에 대한 우리 교회의 믿음을 설명하며 몇몇 성도님들의 마음에 혹여 무거운 짐을 올려드리는데 것 같아 저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국가관을 전파하는 교회, 올바른 민주시민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와 신념이기에 오늘 여러분 앞에 가감 없이 이야기 한 것이니 부디 바르게 분별하여 듣고 받아들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단결하여 하나님이 일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